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노수광의 ‘해뜰날’



베이스볼 피플

데뷔 첫 홈런에 첫 4안타 경기까지 시즌 초반 4할 맹타...이적생 신화 “난 아직 하루살이...열심히 뛰어야”

지난해부터 KIA의 팀 기조는 ‘리빌딩’이다. 투타에 걸쳐 기존 주축선수들에 젊은 선수들을 섞는 ‘건강한 리빌딩’을 진행 중이다. 자연스럽게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세대교체를 대비하는 가장 바람직한 리빌딩 방법이다.

이를 위해 선수 자원이 많아야 한다. 지난해 KIA는 총 58명의 등록선수가 경기에 나섰다. 10개 구단 중 경기당 평균 14.02명을 써 경기당 야수 사용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등록선수 대부분을 1군에서 쓴 셈이다.

사실 이러한 배경엔 ‘가능성 확인’이라는 긍정적 신호와 함께 ‘전력 부족’이라는 처절한 현실도 있었다. 그래도 장차 1군 전력에 될 선수들을 다수 발굴해 냈다는 데서 위안을 삼을 만했다.

실제로 시즌 전 주전 중견수 자리를 놓고 지난해 수비로 두각을 드러낸 김호영(24)과 한화에서 트레이드된 오준혁(24) 등이 경합을 펼쳤다. 여기에 노

수광(26)이 최근 가세했고, 경쟁자들이 2군에 내려간 사이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노수광은 25일까지 12경기서 타율 0.444(36타수 16안타)·1홈런·5타점·9득점·4도루로 활약 중이다. 타고난 스피드와 넓은 수비범위, 악바리 근성, 여기에 타격 실력도 갖춰가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롯데와의 3연전에서 폭발했다. 유독 ‘첫 경합’도 많았다. 23일 경기에선 데뷔 첫 홈런을 날렸고, 24일엔 한 경기 개인 최다인 4안타 경기를 펼쳤다. 노수광은 “지금 내 내가 아닌 것 같다. 작년엔 트레이드되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며 활짝 웃었다.

청주고와 건국대를 졸업하고 2013년 한화에 육성선수로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노수광은 지난해 오준혁과 함께 한화에서 4대3 트레이드로 이적했다. 당시 함께 건너온 유망주 유창식(24)과 베테랑 김광수(35) 등 투수 2명에게 가려져 있었지만, KIA는 트레이드 당시 군 문제를 해결한 2명의 외야수들에게

미려노 기자 nirvana@donga.com

수비에 감정이 있기 때문. 그러나 지금은 9일 끝낸 노수광만이 1군에 남아 존재감을 내뽐고 있다. 경쟁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만한 활약이다.

노수광은 최근 활약에 대해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타석에서 생각을 비우는 게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 같다. 아직 주전 같은 건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준비하고 노력할 뿐”이라고 밝혔다.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 그리고 2군에서도 노수광은 타격 시 타이밍을 여유 있게 잡는 홈런을 해왔다. 타격폼 수정을 연구하면서 주변에 조언도 많이 구했다. 일본야구 경력이 있는 이범호를 비롯한 산전수전 다 겪은 선배들이 모두 스승이다. 그는 “2군에서 결과가 좋아 ‘한 번해보자’는 마음으로 1군에서 밀려볼았다. 조금씩 내 것이 생기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하루하루가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노수광은 “아직은 목표가 없다. 그런 건 정하지 못했다. 아직 난 하루살이 같다. 하루하루 열심히 뛰고, 안 되는 게 있을 땐 빨리 잊고 연습하는 게 내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KIA 노수광은 2013년 한화에 육성선수로 입단할 때만 해도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화에서 KIA로 트레이드되며 전 환점을 맞이했고, 올 시즌 25일까지 12경기에서 타율 0.444, 1홈런, 5타점으로 활약하며 공격에 힘을 보태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자동차문은 없다 KIA 김주천(가운데)이 26일 한화생명아리산파크에서 열린 한화전 1회초 2루 도루를 시도했으나 2루수 정근우의 태그에 걸려 아웃되고 있다. 대전 |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뉴 잠실구장’ 두산·LG 희생만 강요하나

서울시, 민간자본 100%로 건설비 조달 입장 제3사업자 기대 어려워...결국 두산·LG 부담

새로운 잠실야구장이 들어선다. 2019년 착공에 들어가고, 2025년 완공이 목표다. 한강을 배경으로 야구를 볼 수 있는 입지다. 야구장 수용인원은 무려 3만5000석에 달한다. 돛구장으로 지어질 수도 있다. 서울시의 바람처럼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손색없는 밀그림이다. 그런데, 의문이 남는다. “그럼 돈은 누가, 어떻게 대지?”라는 지점에서 서울시와 야구계의 괴리가 발생한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프로스포츠의 좌표를 어디에다 설정할 지를 정하는 역사적 전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100% 민간자본으로 야구장을 지을 수 있을까?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야구장 건설비로 2000억~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자본 100%로 조달하겠다. 입지와 기반시설이 좋아 (야

구장 운영으로 수익 경쟁력이 발생할 것이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투자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잠실구장을 쓰던 LG, 두산이 새 야구장으로 함께 가는 것이 기본입장. 이 구단들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협의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밝혔다.

이에 관해 두 구단 측의 기본입장은 “난감”으로 요약된다. 두 구단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서울시는 두산, LG가 건설비 일부를 투자하는 방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쟁점은 두 구단이 감당할 건설비 범위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전례에서 KIA와 삼성은 300억~500억원을 부담했다. 그 대신 야구장 운영권에서 일정부분 혜택을 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뉴 잠실야구장은 서울시나 정부 돈이 들어가질 않을 계획이다. LG, 두산이 최소 1000억

원씩 감당하는 시나리오는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그들 차원에서 부담을 느낄 규모다.

그렇다고 제3의 사업자가 들어오면 추후 야구장운영 수익배분이 복잡해진다. KBO 관계자는 26일 “스포츠산업진흥법이 8월 개정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장 건설에 25%이상을 투자한 팀에 25년 이상의 무상 임대권을 주기로 돼 있는데 제3사업자가 들어올 유인책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프로야구는 공공재인가? 영리사업인가?

서울시의 새 야구장 건설에 비판적인 목소리의 야구계 인사의 말이다. “동대문야구장이 허무하게 사라졌는데 잠실구장마저 이렇게 옮기면 한국야구의 역사 유산은 다 이렇게 처분되어도 괜찮은가?” 한 야구계 관계자는 “결국 서울시는 자원의 논리에서 잠실을 재개발하고

있다. 입지가 좋은 잠실구장을 없앤 자리에 돈 되는 시설을 두고, 야구장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석으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단국대 전용배 교수는 “서울시가 잠실 개발로 얻을 이익 총액을 생각할 때 야구장 건설비용은 아주 작은 지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시 의회가 따라야 할 행정 조례가 있었지만 시점만 바꾸면 야구장 건설에 따른 비용 부담은 지방의 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적다는 얘기다. 허규연 MBC 해설위원은 “1982년 프로야구 시작 이래 대기업을 야구단에 쏟아 부은 비용이 5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익을 본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지자체가 프로야구를 공공재로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주는 위해 두산, LG 두 야구단이 주는 무형의 가치를 생각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한화와 마침표 찍은 한상훈

결별 최종 합의...자유계약 신분으로

한화와 결별을 선언한 한상훈(36·사진)이 완전한 무적신분이 됐다.

한상훈은 25일 한화 구단 관계자와 만나 결별에 최종 합의했다. 한상훈이 “한화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지(스포츠동아 2월19일자 단독보도) 2개월 만이다. 완전한 자유계약 신분인 한상훈은 어떤 구단과도 입단 협상이 가능하다.

한상훈은 지난해 11월 30일 한화의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쉽게 말해 방출 통보였다. FA 계약 기간 중 방출된 첫 사례라 관심이 쏠렸다. 발목 부상을 당한 한상훈은 2014시즌 직후 발목 헛조각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회복 속도가 더뎠다. 2015시즌 35경기(타율 0.230·8타점)에 출전한 것이 전부였다.

한화는 보류선수명단에서 제외된 한상훈에게 “육성선수로 새로 계약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한상훈은 한화의 제안을 거절했고, 결별을 선언했다. 게다가 당시 한상훈의 FA(프리 에이전트)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터라 상황이 모호해졌다. 2013시즌이 끝난 뒤 4년 총액 13억원(계약금 3억원·연봉 2억원· 옵션 2억원)에 계약한 한상훈의 계약 만료 시점은 2017시즌 후였다. 즉 2016~2017시즌 동안 연봉(총 4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FA 계약 기간에 사고 또는 임의탈퇴 등 본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잔여연봉은 보장된다. 한상훈은 지난 달 30일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를 통해 “팬 여러분과 동료들께 한화를 떠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스럽다”며 결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그러나 당시 양측이 합의서에 최종 사인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한상훈은 25일 한화 관계자와 만나 잔여연봉 지급방식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합의서 작성에 문제가 없었다. 2014시즌 직후 발목 헛조각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회복 속도가 더뎠다. 2015시즌 35경기(타율 0.230·8타점)에 출전한 것이 전부였다.

한편 한상훈은 프로통산 1043경기에서 타율 0.239, 12홈런, 216타점, 52도루, 출루율 0.323의 성적을 거뒀다. 이 본기를 앞세운 안정된 내야수비로 ‘명품수비’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2루를 중심으로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수비 강화 차원에서는 여전히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잔여연봉은 보장된다.

한상훈은 지난해 11월 30일 한화의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쉽게 말해 방출 통보였다. FA 계약 기간 중 방출된 첫 사례라 관심이 쏠렸다. 발목 부상을 당한 한상훈은 2014시즌 직후 발목 헛조각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회복 속도가 더뎠다. 2015시즌 35경기(타율 0.230·8타점)에 출전한 것이 전부였다.

한화는 보류선수명단에서 제외된 한상훈에게 “육성선수로 새로 계약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한상훈은 한화의 제안을 거절했고, 결별을 선언했다. 게다가 당시 한상훈의 FA(프리 에이전트)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터라 상황이 모호해졌다. 2013시즌이 끝난 뒤 4년 총액 13억원(계약금 3억원·연봉 2억원· 옵션 2억원)에 계약한 한상훈의 계약 만료 시점은 2017시즌 후였다. 즉 2016~2017시즌 동안 연봉(총 4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FA 계약 기간에 사고 또는 임의탈퇴 등 본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잔여연봉은 보장된다. 한상훈은 지난 달 30일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를 통해 “팬 여러분과 동료들께 한화를 떠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스럽다”며 결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그러나 당시 양측이 합의서에 최종 사인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한상훈은 25일 한화 관계자와 만나 잔여연봉 지급방식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합의서 작성에 문제가 없었다. 2014시즌 직후 발목 헛조각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회복 속도가 더뎠다. 2015시즌 35경기(타율 0.230·8타점)에 출전한 것이 전부였다.

한편 한상훈은 프로통산 1043경기에서 타율 0.239, 12홈런, 216타점, 52도루, 출루율 0.323의 성적을 거뒀다. 이 본기를 앞세운 안정된 내야수비로 ‘명품수비’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2루를 중심으로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수비 강화 차원에서는 여전히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한화의 희망’ 로저스·안영명 컴백 임박

내일·29일 나란히 퓨처스리그 등판 1~2차레 더 등판 후 1군 콜업 예정

참혹하게 추락하고 있는 한화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투수 에스밀 로저스와 안영명이 부상에서 회복되면서 차례로 실전등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 김성근 감독은 26일 대전한화생명아리산파크에서 KIA전을 앞두고 “로저스는 모레(28일), 안영명은 그 다음날(29일) 상동에서 등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상동구장에서 열리는 롯데와의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 나란히 마운드에 오르는 사실을 알렸다.

이들이 가세한다고 해서 침체된 팀 분위기가 반동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한화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선발 로테이션부터 정비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김 감독은 “로저스는 2군에서 두 번 정도 (등판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영명에 관해서는 “원래 KIA전에 강하니까 욕심 같아서는 (이번 3연전) 내고도 싶었지만 부상이 재발하면 안 되니까 2군에서 한 번 던질 것이다”고 밝혔다. 로저스는 2차레 등판에서 이상이 없으면 5월초에 1군에 올릴

계획이며, 안영명은 1차레 등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곧바로 1군으로 호출하겠다는 복안이다. 로저스는 지난해 8월 팀에 합류해 10경기에만 나왔지만 4차레(3완봉승 포함)나 완투하는 등 6승2패를 올리면서 에이스로 자리잡았다. 올 시즌 외국인투수 최고몸값인 190만 달러를 받고 재계약했으나 스프링캠프 도중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재활훈련을 이어왔다. 최근 불펜피칭과 라이브피칭을 소화하면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퓨처스리그 실전등판을 준비하게 됐다.

안영명은 지난해 10승을 올리면서 한화 토종투수로는 2011년 류현진 이후 4년 만에 두 자릿수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캠프 막바지에 엄지뼈 통증이 발생해 피칭을 잠시 중단하던 터, 시범경기 2차레 등판해 4.1이닝 13실점(12자책점)으로 방어를 24.92로 부진했다. 성적보다 부상이 더 큰 문제였다. 컨디션이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불펜피칭을 했다. 어깨와 팔꿈치 등 여기저기 몸이 좋지 않았다. 결국 시즌 개막에 합류하지 못하고 재활군에 내려가 몸을 추슬러야만 했다. 로저스와 안영명이 한화 반격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 대전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윤석민 완투 후유증? 등판 일정 안갯속

28일 한화전 홍건희 대체 선발 투입

완투 후유증일까. KIA 윤석민(30·사진)의 시즌 4번째 등판 일정 이 안갯 속이다.

KIA 김기태(47) 감독은 26일 대전 한화전을 앞두고 “(윤)석민이가 완투 이후 아직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모레(28일) 선발등판이 힘들어 대신 홍건희(24)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윤석민은 17일 광주 넥센전에서 선점만 바꾸면 야구장 건설에 따른 비용 부담은 지방의 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적다는 얘기다. 허규연 MBC 해설위원은 “1982년 프로야구 시작 이래 대기업을 야구단에 쏟아 부은 비용이 5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익을 본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지자체가 프로야구를 공공재로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주는 위해 두산, LG 두 야구단이 주는 무형의 가치를 생각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3.38(10.2이닝 4실점)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KIA 선발진의 한 축을 담당할 재목이기도 하다.

한편 KIA는 한기주(29)가 종아리 부상으로 빠진 임준혁(32)을 대신해 5선발 자리를 책임진다. 김 감독은 “(한)기주가 5선발로 로테이션에 합류한다. 29일 광주 두산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주는 23일 사직 롯데전에서 임시선발로 나와 승리를 쟁겼다. 5이닝 4실점 7안타로 내용은 아쉬웠지만, 일단 이닝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믿음을 줬다. 팔꿈치와 어깨 상태가 관건인데 이 코치는 “부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구속도 시범경기 시속 140km대 초반에서 현재 중반대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대전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대전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